

##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정 안 숙<sup>†</sup>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심리학과

“공동체”가 현대인의 복지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적 맥락에서, 본 논문은 심리학의 한 분과로서의 공동체심리학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무엇보다 공동체 및 공동체심리학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들로 알려진 개인과 가족의 건강증진, 공동체의식, 문화적 다양성 존중, 사회적 정의의 추구, 시민참여, 권한이양, 협동 및 공동체의 강점 부각, 그리고 실증적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각각의 개념을 설명함과 동시에 국내외 실증 연구들을 통해 해당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들 및 주요 원칙들이 현대한국사회에 함의하는 연구 및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 국내 심리학자들의 학제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공동체심리학, 핵심가치, 현대한국사회, 사회환경적 맥락, 다양성

---

<sup>†</sup> 교신저자: 정안숙,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심리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멀티컴플렉스빌딩 5056호

Tel: 032-626-6013, E-mail: granble@gmail.com

“살 만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특정 정당이 선거에 사용했던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2015년 5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엑스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이하 BLI)”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살 만하십니까?”에 상응하는 “How’s Life?”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들이었던 것이다. 즉, OECD가 국가별 경제지표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소득수준 지표로서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을 너머, 교육, 안전, 시민참여, 그리고 공동체 등의 11개 새로운 지표들으로써 각 지역의 복지 수준, 즉,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 중 하나인 “공동체” 지표는 영어표현으로 커뮤니티(community)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망의 질(quality of social support network)을 표현한다고 하였다(Gurria, 2015).

심리학 영역에서는 동일한 어휘를 수십 년 전 다른 외국어 어휘들과 함께 번역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라고 하였다. 이는 지역에 기반한(locality-based) 사회로서의 공동체로 그 의미를 한정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란 지역과는 무관하게 관계에 기반한(relational) 사회를 의미하기도 한다(Gusfield, 1975).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공동체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이 포괄하는 영역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범위의 “지역사회(locality)”와 그 기능을 넘어서서, 한규석(1996)의 논문에서 지적된 바와도 같이 문화적 맥락이 되는 생활공동체, 또는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관계망을 아우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심리학”보다는 “공동체심리학”이라는 표현으로써 해당 연구분야에서 주요 관심으로 삼는 변인들을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현대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공동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 방증하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지금이 공동체심리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심리학자들 간 오랜 합의를 거쳐 공동체심리학의 핵심가치들로 인정되는 원칙들(Kloos, Hill, Thomas, Wandersman, Elias, & Dalton, 2012)을 소개함으로써, 현대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연구 및 적용의 사례들에 대해 공동체심리학이 일종의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심리학의 제반 분과 중에서도 가장 응용된 분야에 속하는 공동체심리학이 그 맥락으로서의 현대한국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생태학적 의미로서의 공동체심리학의 정의 (Definition of Community Psychology in Ecological Terms)

무엇보다도 “공동체심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수월한 작업은 아니겠지만, 생태학적 개념으로 인간과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려고 할 때 동원되는 시스템적 시각을 살펴보면, 공동체심리학의 의미가 확연해진다. 즉, Bronfenbrenner(1979)에서 시작된 생태학적 분석수준(ecological levels of analysis)에 대한 고찰이다. 러시아의 목각 인형인 마트료시카(Матрёш

IIIKA, nested doll of Russia)에 착안한 모델로 알려진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형은, 모형의 핵심인 개인이 microsystem에 속해 있고, 이는 다시 mesosystem, exosystem, 그리고 macrosystem에 속함으로써 층층이 둘러싸여 있다고 본다. 즉, 개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있는 microsystem은 말하자면 가족이나 직장 등과 같이 개인이 속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다. Mesosystem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라기보다는, microsystem들 간의 관계를 일컫는 용어이다. 그리고 exosystem은 개인이 직접 소통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공동체를 뜻한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회사와 대학생 아들 정도의 사이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회사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직장과 맺는 관계로 인해 아들과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들을 모두 둘러싼 사회적 체계, 공공 정책, 또는 문화로서의 macrosystem이 있다(Bronfenbrenner, 1976).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개인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의 공식·비공식 조직을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심리학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생태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Kloos, et al., 2012). 그 구체적인 연구들은 다음에 열거된 여덟 가지 핵심가치들(core values of community psychology)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과 가족의 건강증진, 공동체의식, 문화적 다양성 존중, 사회정의의 추구, 시민참여, 권한이양, 협동 및 공동체의 강점 부각, 그리고 실증적 연구가 그것이다.

### 개인과 가족의 건강증진(Individual and Family Wellness Promotion)

공동체심리학의 기원은 1965년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 스왈스콧(Swampscott)이라는 도시에서 임상심리학자들이 모여 임상심리학에 대한 대안을 고민했던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Kloos, et al., 2012). 당시의 사회환경적 맥락상, 임상심리학자들이 기존의 임상장면에서 치료자 역할만을 해오던 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사회적 맥락이란, 첫째,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적인 접근보다 예방적인 접근의 처치가 훨씬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의역하자면 ”백만원 들여서 치료할 병도 오만원이면 예방할 수 있다” 정도의 뜻)라던 벤자민 프랭클린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접근의 비용효율은 주지의 사실이다(Caplan, 1961). 각종 신체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질환, 그리고 교육장면에서도, 병리적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문제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더 큰 신체적·정신적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지금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초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나 자살 문제를 개인·가족·사회공동체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그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의 연구에서도 지적되듯이, 한 학생이 피해자로서나 가해자로서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자기효능감, 또는 폭력적이거나 일탈적인 행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개인이 부모와, 또

래들과, 그리고 학교교사들과 맺는 관계에서 학교폭력의 원인 및 결과가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접근도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만을 목표로하지 않고,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를 단위로 삼게 될 것이므로, 행정학이나 법학 분야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김창균 & 임계령, 2010).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자살 문제의 경우, 연령대 별로 자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공동체가 노력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도 초점이 달라질 것이다(김형수, 2006).

공동체심리학의 범위가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선 공동체의 삶의 질까지도 아우른다는 것은 암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즉, 한 개인이 암 진단을 받는 것은, 한 개인의 신체·정신에만 그 효과가 머물지 않고, 특히 그의 가족, 더 나아가 친구관계 및 직장에게까지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 자극(stressor)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Nijboer, Triemstra, Tempelaar, Mulder, Sanderman, & van den Bos, 2000). 기능적인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들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적절한 책임을 분담하고 협동체계를 가동할 것이고, 친구들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는 한 동료의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암환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에 국한될 때에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환경적 맥락을 놓치게 되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다.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환자가 속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지지체계, 그리고 환자의 직장에 있어서의 파급효과(ripple effect), 그리고 환자의 암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장치에 대해서까지도 연구의 변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변수들에 대해 일찍이 정신종양학(psych-oncology) 분야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심리학자들이 해당 연구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드문 편이다. 공동체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더 많은 심리학자들의 관여가 기대된다.

공동체심리학의 태동을 부채질했던 당시 사회환경적 맥락으로 중요한 또 다른 요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2차대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동이었다(Kloos, et al., 2012). 전쟁 후 고국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보인 신체적·정신적 외상 때문에 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해서는 당시 가용 정신과전문의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량이었던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Community Mental Health Volunteer) 조직 및 상이군인회(Veterans Administration) 조직이 설립되었을 정도로, 전쟁참전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이하 PTSD)는 복귀 공동체가 안게 된 중요한 문제였다(Kelly, 2003).

2015년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전쟁 및 각종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극적 현상은, 반대로 심리학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PTSD라는 결과적인 현상에 초점을 둔다면 더 많은 임상·상담·건강 심리학자들 및 사회복지사

들이 전공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현상을 다시 예방적 접근으로 바라본다면, 집단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즉에 가동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보건학, 행정학, 그리고 법학 종사자들의 역할도 더불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동체의식 및 다양성 존중을 논하는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Sarason은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항시적으로 가용하고 상호적으로 지지적인 관계”가 공동체라고 정의하면서, 그 핵심에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다고 하였다(Sarason, 1974). 후에 다른 학자들은 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라고 이름하였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McMillan과 Chavis의 논문(1986)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데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소속, 조직에의 영향, 필요의 충족,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이 그것이다. 소속(membership)은 특정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과 속하지 않은 비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표현하는 상징체계, 구성원들이 느끼는 정체성, 그리고 심리적 지분 내지는 관심(personal investment)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조직에의 영향이라고 하면 개인의 의사가 조직의 작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조직의 결정이 개인의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포괄하게 되므로, 양방향의 영향관계를 일컫는다. 조직에의 영향이 수직적인 흐름이라면, 수평적인 흐름으로서의 필요의 충족도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활동들을 통해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 또는 구성원 개인이 지각하는 수요(needs)를 얼마나 충족해가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특히 지역에 기반한 조직에서보다는 관계에 기반한 조직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요소이다(McMillan & Chavis, 1986). 즉, 관계에 기반한 조직의 대부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필요가 얼마나 충족되는지가 공동체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유대감인데, 이는 개인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끈끈하게 소속감을 느끼는가의 문제로, 집단적 제의(group rituals)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다. 많은 조직들이 신입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트레이닝 과정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Berkowitz, 1996; Rappaport, 2000).

물론 부정적인 공동체의식(negative sense of community)을 경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은 동네에서 방과 후에 부모가 돌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이들이 폭력에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이 있다고 치자. 그 동네에 지역적으로 속해있지는 않지만, 아이를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부모는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능동적으로 고립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공동체의식이 낮다”기보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공동체의식”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복지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려되어야 할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Brodsky, 1996). 즉, 관찰되는 공동체의식의 수준은 그 자체로서는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공동체의식이 작동하는 맥락을 고려해야 그 효과 및 기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지므로, 다차원적인 분석을 동원한 심리학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체 간의 갈등에 대한 해법 모색도 심리학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개인이 속한 특정 공동체에 대해 절대적인 공동체의식을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그와 다른 가치를 표방하는 공동체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인종·문화적 갈등 상황들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 맥락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공동체의식 및 그 효과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다양성 존중, 즉 개인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적 다양성 존중

#### (Respect for Human Diversity)

공동체심리학의 근원은 개인을 개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맥락의 산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perspectives)은 여러 다른 이론가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처한 맥락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contexts)을 인정할 때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게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Trickett, 1996). 맥락의 다양성, 다시 말해 광의의 문화로서의 다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차원(dimensions)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차원이 인종적 다양성이다. 영어 단어로 치면 race보다는 ethnicity이다. 즉, 유전적·신체적·물리적·생물적인 변인으로서의 인종이라기보다, 사회적·문화적·관습적인 변인으로서의 인종이다(Helms, 1994). 문화적인 배경으로서의 인종은 각기 다른 피부색깔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나 문화적 행동양식 등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문화적인 차이는 맥락에 따라서 자원(assets)으로 취급될 수도 있고 결점(deficiency)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보유한 모국어 실력이나 조선족이 보유한 연변지역 문화에 대한 통찰 등은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자원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반해 미국·영국·호주 등 영어권 국가 출신 이주자들은 영어구사능력 만으로도 한국사회에서 환영받는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바꾸어 말하면, 전자와 후자 집단 사이, 한국어 실력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한국인들로부터 받는 눈총의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적응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에서 한국사회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사회(host society)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주자들의 문화적응에 어떤 문화적 맥락을 제공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Bourhis, Moise, Perreault, & Senecal, 1997). 인종이 개인의 정체성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Birman, 1994), 문화적 맥락을 일종의 고정변인(fixed variable)으로 취급하는 비교문화 접근의 연구들(cross-cultural studies) 외에도, 다양

한 맥락적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의 문화적응(acculturation) 연구도 국내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사회복지학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성별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변인들이 다.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을 구분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인 억압의 역사가 달랐고, 따라서 성(gender)이 함의하는 바가 개인의 행동에 이미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Mankowski & Maton, 2010). 또한 이에서 더 나아가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의 문제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기의 중대한 쟁점으로 성정체성 문제가 떠올랐을 뿐 아니라, 성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생물학적 성과 동일한 심리사회적 성 정체성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와 압박을 받아온 많은 사람들의 커밍아웃을 목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이와 같은 성정체성 이슈가 자신에 대한 자기개념의 문제인 것과 달리, 타인, 특히 성적 대상으로서의 타인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정도에 따른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의 다양성도 공동체심리학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이혜민, 박주영, & 김승섭, 2014).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 매해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국민의 약 3%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한국사회에서(통계청, 2015), 이미 누적된 소득불평등 및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화된 상태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자본주의의 고전적인 폐해로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질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불균등하여 빈자들에게는 가난의 악순환, 부자들에게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 즉,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집단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사회의 통합(integration)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시하지 않고는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현대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신체·정신적 장애 유무에 따라,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 따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신장시키고 있다(원숙연, 2008). 지금까지 기술된 다양성의 맥락은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가 아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태도에 관한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을 이해하려는 심리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다양한 맥락은 개인의 인지과정 및 행동양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 사회정의의 추구(Social Justice)

전술한 다양성, 맥락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의 맥락을 고려하고 보면(Trickett, 1996), 현상(status quo) 유지의 편리함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의 근원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행동이 사회환경적 맥락에 대한 적응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보면, 개인의 현재를 탓하기(victim blaming)가 어려워진다. 결국 공동체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학문적 연구결과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경험하는 삶의 질곡을 풀어낸 연구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는 데에 그친다면, 과연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iger, 1993)? 따라서 다

양한 인권운동가들과 연대하여 피하는 노력들이 공동체심리학자들의 또 다른 역할로 자주 관찰된다. 장애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연구하다보면 이들이 겪는 차별과 자원의 불균형 배분에 대해 인식하게 되지 않을 수 없고 (McDonald, Keys, & Balcazar, 2007),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연구하다보면 이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는 적응의 곤란과 부당한 차별을 직면할 수 밖에 없다(Phelan, Davidson, & Yu, 1997). 다양한 맥락에 의해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 특히 최근에는 여성과 아동 노숙자들이 급증한 것도 일례가 된다. 말하자면 각종 처벌적 맥락이 한 데 엮어져 여성과 아동이 겪는 복합적 불편은 가정폭력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고 더불어 교육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등, 우리 삶의 불편한 환경을 모두 엮어놓은 것 같은 상황일 때가 많다(Shinn, 2009). 이와 같은 사회환경적 맥락을 마주하게 되는 심리학자들이 결과적 지표로서의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Rutter(1979)가 지적한 것처럼, 위험요인이 특정 개수를 넘어가면서 예기되는 문제행동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이렇게 다양한 차원의 문제가 결합할 때 더욱 빈번히 관찰되는 내용인 것이다.

다시 공동체심리학의 태동기로 돌아가도 동일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즉, 50년 전 미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이 탄생하는 데에 기여했던 사회환경적 맥락 중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운동과 연결되는 것이다(Kloos, et al., 2012). 흑인인권운동, 여성인권운동, 그리고 성소수자인권운동 등, 당시 미국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공동체심리학이 시작되었다. 결국 5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사회적 소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단면은 다른 내용을 보여줄지 몰라도,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사회운동에서만 그치지 않고 공공정책의 입안을 통해서 사회의 현상태를 변화시키기를 꾀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내에서는 응용심리학 분야로서의 임상 또는 상담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정신보건법 등을 통해 노력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입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적인 협동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2014년 4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심리학회 차원에서 보여준 다양한 행동들이 그 방증이다. 즉, 재난과 정신건강에 대한 급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및 임상심리학자들이 PTSD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제공하였고, 이후 국립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였다(안현의, 2014).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예를 보면, 상시적 프로그램들을 설립하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정책자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APA Congressional Fellowship Program이다 (APA, 2015). 또한 미국심리학회 분과 중 제9분과는 심리학 및 사회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이하 SPSSI). 전술한 APA의 펠로십 과정과는 별도로 SPSSI에서 운영하



는 공공정책 인턴과정도 있다. 한국심리학회 회원 중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학회 차원에서 또는 유관 사회과학 분야와의 협조관계 아래서 공적 채널을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심리학 및 제반 사회과학 연구결과가 학자들 사이의 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를 더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전술한 사회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작동방식으로서의 시민참여이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기관, 또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결정짓는 과정에 개인이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Wandersman(1984)의 정의에서 보듯이, 시민참여는 개인이 집단 또는 조직의 프로그램 내용을 소비하는 객체(client)라기보다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citizen)으로서 조직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반상회 같은 지역사회 모임을 비롯해서, 각종 투표 및 선거 등도 크고 작은 시민참여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민참여는 사회적 부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위로부터의 결정을 따르기(top-down process)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bottom-up process)을 따르고자 한다(Wandersman, 2009). 공동체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자신들이므로, 어떤 개입 프로그램도 공동체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needs assessment)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 개념이 공동체심리학에서, 특히 연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심리학 연구의 대상자들이 더 이상 대상자(research subjects)로서 머물지 않고 연구의 협조자로서 참여(research collaborators and participants)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실증주의적(positivistic) 관점에서 연구자가 정답을 얻기 위해 현상을 연구하려고 하는 양적 연구방법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구체적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s)을 청취하는 입장으로서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것도 탈실증주의에 기반한(post-positivistic) 철학적 입장과 시민참여 가치에 대한 존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연구의 전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연구문제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연구(Trickett, 1996), 즉,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공동체에 속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을 통해 연구참가자를 모집하고, “자료수집”이라는 목표를 넘어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한 후에도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과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복지, 즉 삶의 질 향상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는 것이 공동체심리학자들의 관심이기 때문이다(Kloos, et al., 2012).

앞에서 기술된 사회정의 추구하고 함께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Kloos, et al., 2012).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 및 인식의 변화와 같은 일차적 변화(first order change)는 개인

이 속한 공동체의 공적 체계 수준에서의 이차적 변화(second order change)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 및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으로서의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공동체심리학에서 기존의 질서(status quo)가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한 질서임을 직시하기 때문이다(Wilson, Hayes, Greene, Kelly, & Iscoe, 2003). 이와 같은 이차적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즉 시민참여 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 권한이양(Empowerment)

전술한 사회정의 및 시민참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심리학적 변인이기도 한 임파워먼트는, 한국어로 권한 “이양”이라고 되어 있다. 임파워먼트의 의미는, 본래적인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환기시켜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Kloos, et al., 2012). 따라서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본래적인 주권자에게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때, “권한(power)”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누군가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으로서의 권력(power over)일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이 원하는 보상과 원하지 않는 처벌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내포되어 있다(French & Raven, 1959; Kloos et al., 2012에서 재인용). 현대적인 의미에서 주요한 권한은 타인들과 협력해서 집단을 형성하거나 자발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integrative power)일지도 모른다(Boulding, 1989).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의 권한을 의미하더라

도, 권한이양을 생각할 때 Riger(1993)의 문제 체계를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주의적(feministic)인 관점을 견지하는 Riger의 입장에서는 권한이양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너무 경쟁적이고 남성중심적이라는 문제가 있다(Riger, 1993). 즉, 권한을 가진 자와 권한을 갖지 않은 자 사이에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 쟁취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들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Riger는 결국 누가 누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진정한 협동(cooperation)과 공동체 연합(communion)적인 접근으로 나아갈 필요를 역설한다(Riger, 1993).

그럼에도 이 권한이양 개념이 공동체심리학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Rappaport(1981)의 지적과 같이 인간에 대해 필요 중심의 접근(needs model)이 아닌 권리 중심의 접근(rights model)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즉,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있는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children)과 같고 따라서 더 가진 누군가가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 필요(needs)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 필요 중심의 접근인 데 반해, 인간으로서 고유하게 타고난 권리(rights)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시민(citizen)으로서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권리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Rappaport, 1981).

결국 권한이양이란, 사회정의를 위한 각종 활동들이 사회적 소수자들(socially marginalized population)에 집중되게 되는 만큼 필요 중심의 접근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본적으로는 권리 중심의 접근을 견지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권한이양 연구가 주로 조직 내에서 리더와 팀원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채순화, 배성현, & 김정원, 2007)이나 개인이 권한을 이양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조직 내에서의 행동 또는 리더십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상동 & 박봉규, 2010)도 낮설지 않다. 현대 한국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에서 “갑”이 갖는 권한의 상대적 우위, 그리고 이를 남용(abuse)할 가능성,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을”로의 권한이양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면 말이다. 또는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인 변수로서의 권한이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있다(김수정, 2008).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개념의 권한 또는 권한이양을 의미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권한(rights as citizen)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권한이양은 공동체심리학에서 중요한 연구 및 적용 함의가 큰 가치이다.

### 협동 및 공동체의 강점 부각

#### (Collaboration and Community Strengths)

이미 기술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짐작되듯이, 공동체심리학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제3자가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못하는지를 따지기(deficits model)보다, 본래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원을 강조(assets model)한다(Horton, 1990). 특정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사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공동체 구성원, 사회관계망, 기관들, 그리고 문화적인 자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Matton, Schellenbach, Leadbeater, & Solarz, 2004). 국내의

경우 서울시의 다양한 활동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의 특정 공동체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각 공동체들의 강점을 복돋움으로써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작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김찬동 & 서윤정, 2012).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그 일환이고, 마포구의 한 지역공동체에서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도 일례이다. 즉 마포구의 해당 공동체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 자리에 체력단련기구들을 설치하였다. 주민들이 주야간 가리지 않고 골목길에 나와 체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보니, 주민들끼리 서로 알게 되고, 이로써 공동체의식이 향상되고, 따라서 어둡한 골목길에서 자주 발생하던 범죄가 발디딜 틈이 없게 된 것이다(김찬동 & 서윤정, 2012). 이 프로젝트에서 특기할 점은, 특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결정이 이론적으로 내려진 결론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공동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들을 토대로 하되 이들을 현대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맞게 다시 디자인해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공동체심리학이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만 머물지 않고, 도시공학, 산업공학, 건축학, 생태학, 사회학, 인구학, 보건학, 여성학, 교육학, 간호학, 사회의학 등과 연계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임을 방증하기도 한다.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심리학이 인접 학문들과 협력함으로써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 및 사회환경적 맥락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이 제반 학문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구체적인 프로젝트

의 규모는 다양하겠지만, 기존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피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실증적 연구(Empirical Grounding)

위와 같은 가치들을 실현해가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은 실증적인 연구일 것이다. 이때 가능한 한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환경적 맥락을 개인행동의 요인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위계적 선형 분석방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등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구조적인 변수, 즉, 사회환경적 맥락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응용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구함에 있어 결과변인을 학교별 단순비교만 하기보다는, 교사 대 학생 비율과 같은 학군별 자원이나 학군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및 범죄율 등과 같은 자료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Abbott, Joireman, & Stroh, 2002; Willms & Raudenbush, 1986), 기존의 사회학이나 범죄학에서 자주 사용되어온 다양한 공간/지리정보(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한 분석 등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직접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해당 현상의 전문가로서 초대하여 귀기울이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접, 포커스그룹, 참여적/비참여적 관찰법 등도 다양하게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Kloos, et al., 2012).

덧붙여 가치(values and principles)는 원래 신념이자 믿음체계(belief system)일 텐데, 이를 당

위적 명제로만 한정한다면 정치적인 구호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심리학의 분과로서 자리잡은 공동체심리학 분야에서는 근거(evidence)를 통해 사회불평등이 전사회적으로·장기적으로 비용대비 비효율적인 결과를 야기함을 보여주고 있다(Matton et al., 2004). 특히 모든 다른 사회과학 연구 분야들과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심리학에서도 연구자가 결코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즉 연구자 개인의 가치 및 연구자가 속한 문화적 맥락으로서의 공동체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연구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심지어 이에 대해 연구논문에서 직접 명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성찰적 쓰기(reflexive writing or reflexivity)라고 이름하고(Ashmore, 1989), 연구자들에게 권장하는 추세이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논문들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tool)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구자의 인문사회학적 지위, 배경, 가치관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결국 어떤 연구를 대할 때에도 표면적으로 초점이 된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직시하되, 동시에, 해당 연구가 수행된 배경, 연구자가 해당 연구주제를 택한 맥락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동체심리학의 지난 50년이 햇수로는 짧지만 이루어온 과업으로는 길다고 할 수 있는 역사이다. 그럼에도 이 짧은 한 편의 논문이 공동체심리학의 가치들을 모두 담아내려고 하다보니 더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한 부분도 급히 일단락지은 곳들이 많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심리학의 핵심가치들을 현대한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과 연결지어 보는 것을 시도하였고, 이로써 조금이라도 더

적확한 이해가 가능하기를 목표로 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사회 내에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제반 심리학 분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도를 해보게 되었다. 물론 본고에서 논한 공동체심리학 내용은 대부분이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유럽이나 남미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심리학의 전개는 또 다른 다양한 접근과 사회적인 함의를 지닌다(Kloos et al., 2012). 이는 곧 미국에서 발달한 공동체심리학을 한국사회라는 토양에 그대로 옮겨와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도 아님을 역설한다. 어떤 개입에 있어서도, 성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므로 변용하지 말아야 될 요소들(core components)이 있고, 반대로,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변용해야만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adaptive components)이 있다. 본고에서 공동체심리학에 대해 시도한 것은 그 핵심요소들에 해당하는 가치들(core values and guiding principles)에 대한 소개에 불과하다. 공동체심리학이 한국사회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조건은 한국 내에서도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변용요소에 대해 일개 논문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달성불가능한 목표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짧은 논문 한 편으로써라도 다시 한 번 우리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행동이 일어나는 맥락으로서의 사회적인 구조와 그의 효과로 조금이라도 옮겨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접하게 된 많은 연구들은 심리학이라는 연구 분야 외에도, 사회학, 행정학, 여성학, 보건학, 교육학, 의학, 간호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다시금 공동체,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점에 심리학의 제반 분과에서 연구의 관심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심리학적 지식 및 통찰, 그리고 공동체심리학적 접근이 인접 분야와의 학제적 노력에 가미될 때,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만큼,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결식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9-38.

김찬동, 서운정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171.

김창균, 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173-198.

김형수 (2006). 생애주기별 자살현황과 예방대책: 노인과 청소년 자살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4, 271-292.

박영신, 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1), 63-89.

안현의 (2014). 특별 심포지엄 1: 재난 후 심리 사회적 복구: 세월호 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세월호 사고 관련 한국심리

- 학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방안제안. 한국 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91-91.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이상동, 박봉규 (2010). 호텔종사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4(6), 313-332.
- 이혜민, 박주영, &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채순화, 배성현, & 김정원 (2007). 변혁적 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 간의 다차원적 관련성: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검증. *대한경영학회지*, 20(6), 2611-2638.
- 한규석 (1996). 지역사회 사회심리학적 연구: 그 성격과 접근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21-37.
- 통계청 (20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괄 (2001-2013). Retrieved April 2015,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4년 빈곤통계연보. Retrieved April 2015, from [https://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research/view.jsp?bid=12&ano=1865&key=&query=&year\\_value=0&content\\_type=1&queryString=](https://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research/view.jsp?bid=12&ano=1865&key=&query=&year_value=0&content_type=1&queryString=)
- Abbott, M. L., Joireman, J., & Stroh, H. R. *The Influence of District Size, School Size and Socioeconomic Status on Student Achievement in Washington: A Replication Stud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echnical Report.* Lynnwood, WA: Washington School Research Cente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5). APA Congressional Fellowship Program. Retrieved April 2015 from <http://www.apa.org/about/awards/congress-fellow.aspx>.
- Ashmore, M. (1989). *The Reflexive Thesis: Writing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kowitz, B. (1996). Personal and community sustainabil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441-460.
- Birman, D. (1994). Acculturation and human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E. J. Trickett, R. J. Watts, & D. Birman (Eds), *Human Diversity: Perspectives on People in Context* (pp.261-283). San Francisco: Josey-Bass.
- Boulding, K. (1989). *Three Faces of Power.* Newberry Park, CA: Sage.
- Bourhis, R. Y., Moise, L. C., Perre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6), 369-386.
- Brodsky, A. (1996). Resilient single mothers in risky neighborhoods: Negativ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347-364.
- Bronfenbrenner, Y.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plan, G. (Ed.). (1961).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in Children.* New York: Basic Books.
- French, J. R. P., & Raven, B. (1959). The bases

-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 (Ed.), *Studies in Social Power* (pp.150-167).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Gurria, A. (2015). Going beyond GDP: The OECD's Better Life Index. Retrieved May 2015 from <http://oecdinsights.org/2015/05/16/going-beyond-gdp-the-oecd-better-life-index/>
- Gusfield, J. R. (1975). *The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New York: Harper Colophon.
- Horton, M. (1990). *The Long Haul: An Autobiography*. New York: Doubleday.
- Kelly, J. G. (Director). (2003). *Exemplars of Community Psychology* [Video File]. Chicago: Society for Community Research and Action.
- Kloos, B., Hill, J., Thomas, E., Wandersman, A., Elias, M. J., & Dalton, J. H. (2012).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ashington: Wadsworth.
- Mankowski, E. S., & Maton, K. I. (2010). A community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Historical and conceptual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73-86.
- Maton, K., Schellenbach, C., Leadbeater, B., & Solarz, A. (Eds.). (2004). *Investing in Children, Youth, Families, and Communities: Strength-based Research and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Donald, K., Keys, C., & Balcazar, F. (2007). Disability, race/ethnicity and gender: Themes of cultural oppression, acts of individual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 145-161.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Nijboer, C., Triemstra, M., Tempelaar, R., Mulder, M., Sanderman, R., & van den Bos, G. A. (2000). Patterns of caregiver experiences among partners of cancer patients. *Gerontologist, 40*(6), 738-746.
- Phelan, P., Davidson, A. L., & Yu, H. C. (1997). *Adolescents' Worlds: Negotiating Family, Peers, and School*.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Rappaport, J. (1981). In Praise of Paradox: A Social Policy of Empowerment over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1), 1-25.
- Rappaport, J. (2000). Community narratives: Tales of terror and jo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1-24.
- Riger, S. (1993). What's wrong with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3), 279-292.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Vol. 3). Hanover: University of New England.
- Sarason, S. B. (1974). The American worldview. In S. B. Sarason (Ed.), *Psychoanalysis, General Custer, and the Verdicts of History, and Other Essays on Psychology in the Social Scene* (pp. 100-118). San Francisco: Josey-Bass.
- Shinn, M. (2009). Ending homelessness for families: The evidence for affordable housing. Retrieved April 2015, from <http://www.endhomelessness.org/library/entry/affordable-housing-key-component-to-ending-family-homelessness>.

- Trickett, E. J. (1996). A Future for Community Psychology: The Contexts of Diversity and the Diversity of Contex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2), 209-234.
- Wandersman, A. (1984). Citizen participation. In K. Heller, R. Price, S. Reinharz, S. Riger, & A. Wandersman (Eds.), *Psychology and Community Change* (2nd Ed., pp.337-379). Homewood, IL: Dorsey.
- Wandersman, A. (2009). Four keys to success (theory,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resource/system support): High hopes and challenges in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3, 3-21.
- Willms, J. D., & Raudenbush, S. W. (1986). A longitudinal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estimating school effects and their st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6(3), 209-232.
- Wilson, B. D. M., Hayes, E., Greene, G., Kelly, J. G., & Iscoe, I. (2003). Community psychology. In D. Freedheim (Ed.), *Handbook of Psychology. Vol.1: History of Psychology* (pp.431-449). New York: John Wiley.
- 1차원고접수 : 2015. 04. 13.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8.  
최종게재결정 : 2015. 07. 07.



## The Implications of Community Psychology in the Contemporary Korea: Focusing on Its Principles

Ansuk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This paper aimed to introduce the core principles of Community Psychology to the community of psychologists in South Korea. Beginning with the definitions of “community” in Korean language and “community psychology,” the concepts of such principles as individual and family wellness promotion, sense of community, respect for human diversity, social justice, citizen participation, empowerment, collaboration and community strengths, and empirical grounding, were explained. Along with the concepts, its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 were discussed, in terms of research and practice possibilities.

*Key words* : community psychology, principles, contemporary Korea, social environment, diversity of contexts